

97' 대선과 한국정치 변화

④ 97 대선 경희인 설문조사

경희인, 도덕성 투철한 경제대통령 원한다

각 대학마다 각각의 학풍과 교풍이 있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각각의 대학인들은 상이한 의견을 가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경희의 학풍은 어떠한가.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경희인의 목소리와 생각들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조사기간: 10월 10일~10월 13일
모집단: 경희대학교 학생
표본집단: 서울캠퍼스 259명
수원캠퍼스 244명
총 503명
신뢰구간: 95%
조사방법: 설문지법
조사기법: 통계처리(SPSS), 빈도분석을 통한 유관계수 검증
설문지조사 및 1차분석: 사회학과 학술조사단
2차분석 및 정리: 대학주보 여론조사팀
감수: 황승연 사회학과 교수

글 쓰는 순서

- ①정권교체는 과연 필요한가
- ②DJ로 정권교체 타당성은?
- ③대안세력으로서 국민정당
- ④97대선 경희인 설문조사

□ 설문조사 결과분석

현 정부평가 점수 50점 미만

응답자 대부분 후보의 정책으로 투표기준 삼아

다음 달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현재 투표할 후보를 정한 우리학교 학생들은 김대중 국회의 총재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일 전망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설문지작성자에 대한 출신지역, 생활수준 등을 같이 표기하도록 했음으로 이러한 여타의 개인적 조건들이 선거형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도인 경우 김대중씨의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음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전라도소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도인 경우는 특별한 후보의 지지가 없었고 이인제씨의 경우는 서울, 경기지역거주자들의 지지가 높았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설문지작성자에 대한 출신지역, 생활수준 등을 같이 표기하도록 했음으로 이러한 여타의 개인적 조건들이 선거형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알 수 있는데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도인 경우 김대중씨의 지지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음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전라도소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아버지의 고향이 경상도인 경우는 특별한 후보의 지지가 없었고 이인제씨의 경우는 서울, 경기지역거주자들의 지지가 높았다.

김대중씨 지지를 1위 차지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로는 현 경제불황과 취업난을 반영하는 듯 '경제운용능력'이 40.6%가 답했으며 여러 공직자비리사건이 터지면서 도덕성 항목에도 22.3%라는 높은 지지를 보였다.

한 후보에 대한 지지이유를 묻는 질문에선 '후보자 정당지지'나 '같은 지역 출신이기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치고 정책지지가 19.9%(응답자의 과반수가 투표권이 없거나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가 낮다)로 1위를 차지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느정도 바람직한 투표권 행사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응답자의 36.6%가 '상대후보 비방'이라 답했는데 얼마전 있었던 김대중씨 비자금문제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상대후보 비방으로 비춰졌음이 이를 반영한다.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활발해지고있는 TV토론회와 관련해 'TV토론회 대선후보의 당락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인 67.2%였고 'TV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가' 하는 질문에는 49.9%가 '보통이다'라 답해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비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인제나 김대중씨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주로 'TV토론회의 영향력이 크다'라 답해 TV토론회에서 이 두 후보가 많은 강세를 보이고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수준 따라 지지후보 변화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선 국회의원이가 23.1%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지지정당이 없다'라 답한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는 57.1%에서 정치체력을 보는 시각이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도인 경우 국회의원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다른지역에 비해 지지정당이 없다라 답한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도와 김대중씨, 국회의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연결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민주정치를 얼마나 잘 실현하고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8.4%가 보통이라 답했으며 37.6%는 '못하고 있다'라 응답했고 '잘해내고 있다'라 답한 응답자는 4%를 차지했다. 이 문항에 대해선 응답자의 생활수준에 따라 사



못 다른 결과를 보이는데 낮은 생활수준의 응답자는 민주정치실현도가 낮다고 응답했고 높은 생활수준의 응답자는 민주정치를 잘 실현하고있다는 쪽에 기울었다.

또한 생활수준과 관련하여 이회창, 이인제씨를 선택한 응답자는 높은 생활수준이었고 생활수준이 '하'라 답한 이들은 김대중씨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치적으로 많은 억압과 협박을 받아온 김대중씨가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해줄것이라는 믿음이 투표형태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은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 보수와 안정을 바라는 여당에 표를 던진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정치적 관심적은 경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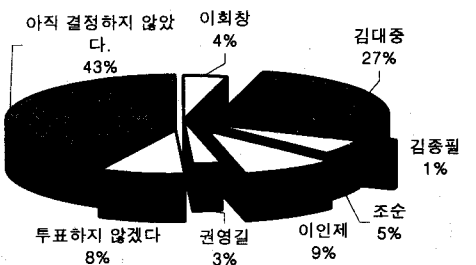
우리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여부를 알기위해 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자신이 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신문, 정치면을 많이 읽을것이고 지역구 선거를 한다던 지역 국회의원 이름도 많이 거론되었을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조사한 결과 국회의장 이름을 맞춘 응답자는 15.9%, 국무총리는 36.2%였으며 지역구 의원은 35.8%만이 답을 적었고 나머지는 무응답이었다. 과반수 이상이 잘 모르거나 틀렸다는 결과를 본다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정치적 관심여부는 낮은수준이라 하겠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평가로 '1백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라'는 질문에는 50점 이하가 90.1%를 차지해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점수를 준 응답자와 학생운동의 정치참여를 주장한 응답자들의 많은 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는 무능하지만 그렇다고 학생운동의 정치참여가 바람직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생운동의 위상변화, 노선변경을 요구하고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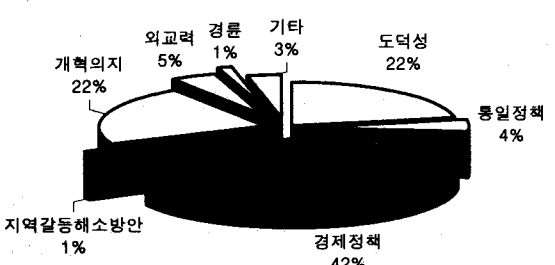
한편 대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것이라 예상했던 권영길후보는 지지도 2.8%로 6명의 후보중에 5위에 그쳤다. 또한 권영길씨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들 스스로도 '권후보는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다'라 답하고 있다. 하지만 권영길씨를 지지한 응답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지고있는 이들이 92.9%에 달해 권영길씨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선거권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본후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투표권이 있는 응답자들은 김대중씨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투표권이 없는 응답자들은 이인제, 이회창씨를 선호하였다. (여론조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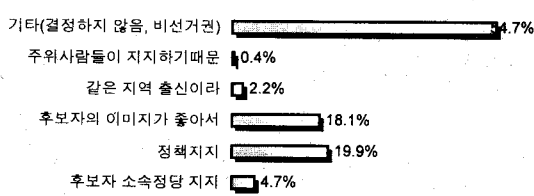
1.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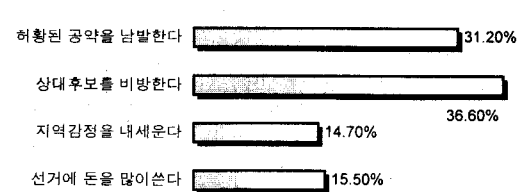
2.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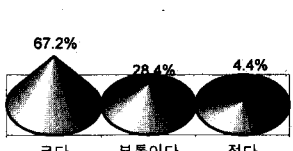
3.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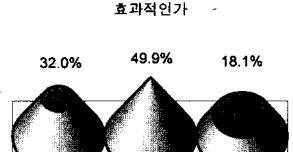
4. 우리나라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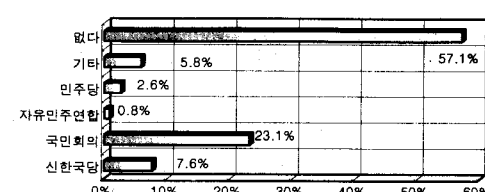
5. 대선후보의 TV토론회에 당락에 얼마나 영향력 미친다고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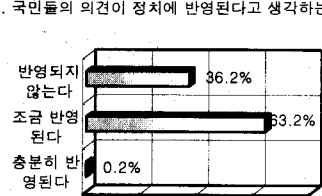
6. TV토론회의 방식이 후보자의 자질, 정책을 알아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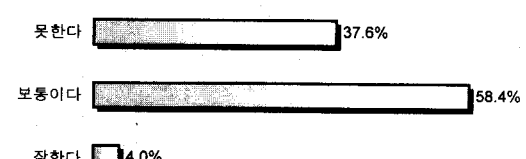
7.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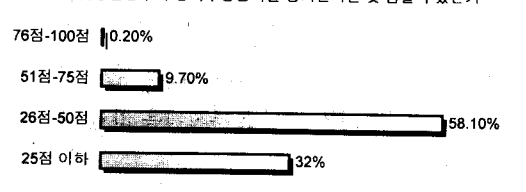
8. 국민들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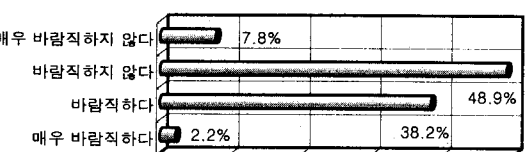
9.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고있다고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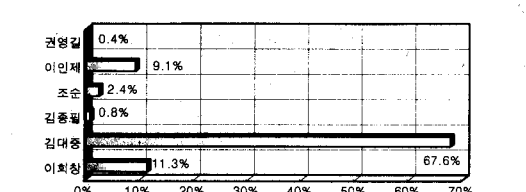
10. 김영삼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겠는가



11. 학생운동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2. 선거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라 생각하나



시한부 워드프로세서?

지금 쓰고있는 워드프로세서는 졸업후엔 못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번 배우지 맙시다!

■ 국내 대기업의 표준인 Word97과 인터넷 활용세마니로 당신의 취업경쟁력을 키워주세요

- 총인대 11월10일(월) 14:00~16:00 • 경희대 11월10일(월) 14:00~16:00
- 강원대 11월11일(화) 14:30~16:30 • 인하대 11월12일(수) 14:00~16:00
- 인천대 11월12일(수) 16:00~18:00 • 배재대 11월13일(목) 미 정
- 전남대 11월14일(금) 10:00~12:00 • 조선대 11월14일(금) 14:00~16:00

• 아래의 매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97 아카데미판을 구입하시거나, 주문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원예정보통신 02)565-5222, 중앙정보처리 02)782-84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서대문 메세캠퍼스 884-1182 고려대 뉴캠퍼스 925-0788 연세대 한신빌 383-2870 한양대 세화빌 232-9288 홍익대 비아이(BI) 320-1555 중앙대 세화빌 820-6442 위국대 세화빌 989-0480 건국대 청암빌 450-3088 한성빌 450-3088 한양대 뉴캠퍼스 925-2114-5 신대대 지용빌(한신빌) 974-1233 중앙대 한양빌 943-3285 국민대 개신대 910-4873 세종대 세화빌 467-9555 숭실대 이레빌 하이테크 826-4301 한성대 한양빌 764-1022 • 경기 상원대 동명빌 033)290-5457 경희대 한양빌 033)46-2674 수원대 세크테크빌 033)222-1550 경원대 청문빌 034)722-4442 2남대 한성빌 033)281-5285 인천대 한양빌 032)764-9881~2 인하대 한양빌 032)872-5220~1 이화대 한양빌 033)219-2293 중앙대 코오빌 02)233-4521 한양대 세화빌 034)406-4108 • 부산 부산대 상남 C&C 514-3340 경성대 한성빌 628-3814 동아대 한양빌 200-6321 부경대 한양빌 628-5145 부산대 부곡빌(한성빌) 646-3313 • 대구 경북대 나우빌 682-4300 영남대 삼성빌 816-6188 연수빌 813-6147 경일대 한양빌 851-1136 • 광주 조선대 일신빌 551-4591 전남대 연대빌 520-6255 • 대전 충남대 우림빌 821-5067 • 울산 울산대 제일빌 258-2943 • 부산 경남대 한양빌 41-5306 • 충북 충북대 삼보빌 043)274-8888 건국대 대우빌 044)10-3313 • 충남 단국대 케이빌 041)751-1767 • 전북 전북대 구하빌 053)20-2170 군산대 한양빌 053)45-2126 • 경북 포항대 우정빌 053)279-5666

국내 대기업의 80%이상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97,
워드프로세서도
졸업후까지 길게 보고
선택하십시오.

97년 대졸취업희망자 32만명,
채용예정인원은 1만5천명-
물론, 당신이 졸업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면 어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전쟁에서 한 발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지금 쓰고있는 워드프로세서가
취업후에도 요긴하게 계속 쓸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97로 대학때부터
미래의 경쟁력을 미리 키워가십시오.

멀리 내다보면 불수록
마이크로소프트 워드97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97 대학생 대우제

97년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워드970키드판을
구입해서 등록하신 모든 분을 5명을 추첨하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방문(98년2월)의 기회를 드립니다.

■ 판매가격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97 : 30,000원(부가가치포함)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97(30,000원)+한글 97(20,000원) : 45,000원
한글 97만 : 전액할인으로 최고 68%의 할인 10 부에
가인 Home Page는 물론 E-Mail 및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글대우제 PPS 서비스

Microsoft
Word 97
http://www.microsoft.com/korea/word